

## 농협조합장 동선거 보니 지방선거 벌써부터 걱정

### “불법·타락 이어질라” 선관위 바짝 긴장

올해 1월~2월 사이 집중적으로 치러진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등 불법·타락으로 얼룩지면서 다가올 6·2 지방선거에도 불법·타락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방선거 운동과정에서도 음식 제공 등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60곳의 전남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중 48곳의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8건 등 총 23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4건은 벌칙 등 선물과 현금 10만 원~100만 원이 오가는 금품 살포 혐의로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신안 입자도의 경우 농협조합장 선거로 마을 주민 1천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출마자 5명 중 당선자 박모(64)씨를 포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주에서도 모 농협조합장 출마자가 제3자를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영암에서는 조합장 후보자 측이 조합원에게 1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광양에서는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측이 조합원들에게 벌칙 1박스를 돌린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전남 곳곳에서 ‘돈 선거’로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신안의 경우 조합장 후보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3천만 원씩 모두 9천500만 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진한 조합원들에게 직접 주머니에 돈 봉투를 찢어주거나 그냥 집에 두고 나오는 방식으로 돈을 스스럼 없이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사촌끼리 서로 좋도록 하자는 식으로 죄의식 없이 돈을 건넨 관행이 평온한 섬 마을을 뒤흔들고만

든 셈이다.

가장 작은 규모의 ‘민주주의 학교’라 할 조합장 선거가 대표 행위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음식제공, 금품 제공 위반 사례 및 의혹 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그동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사항은 광주 17건, 전남 158건 등 무려 177건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자선전 무료 배포, 비방 등이었다. 최근 순천에서는 시장 출마 예정자 측이 일부 기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했다는 의혹이 선관위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며, 무안과 진도 등에서 군수 후보 측의 향응제공 사례가 선관위에 적발돼 최고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정책선거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금품 선거, 비방·흑색 선전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를 벌이는 등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필기자 cki@kwangju.co.kr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참가자 1만여명이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은 나주 남평교를 돌아오는 42.195km 구간에서 뜨거운 순위 경쟁을 벌였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1만 건각 ‘봄비 레이스’ 뜨거웠다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 김동욱·정기영씨 남녀 풀코스 우승

회보 3면·관련기사 6·16·18·19면

‘남도의 새봄’을 여는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남평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전남도·광주일보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가는 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호인·직장인·가족 등 시민 1만여명이 참가해 3·1정신을 기리면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환한 레이스를 펼쳤다.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의 개회선언으로 막이 오른 대회는 박광태 광주시장의 격려사에 이어 참가자들의

‘만세삼창’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축포와 함께 풀코스 참가자들이 힘찬 함성을 지르며 출발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어 10분 간격으로 하프·10km·5km 주자들이 스타트 라인을 벗어나면서 월드컵경기장 일대는 긴 레이스 행렬로 장관을 이뤘다.

특히 5km 주자 대열에는 6월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대거 참가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시·군을 대표하는 마라톤동호회들은 지역홍보를 위해 독특한 복장이나 깃발을 들고 달리면서 ‘내 고향 알리기’에 주력하는

이색적인 모습도 연출했다.

부모·자녀가 함께 나온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으며,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완주한 인간승리의 투혼도 있었다.

풀코스 남자 부문에선 김동욱(44·광양)씨가 2시간38분18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풀코스 여성부

의 경우 정기영(53·대전)씨가 3시간 05분14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서승원기자 swseo@

교통통제 협조 감사드립니다

광주일보사는 1일 일부 지역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며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신 광주시·전남도·광주시체육회·전남도 체육회·광주육상경기연맹·전남지방경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서부경찰서·남부경찰서·나주경찰서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1062-605-1114  
대학원 1062-605-1115

### 동계올림픽 폐막

지난 17일간의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겨울 대축제’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은 1일 오전 9시30분(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82개국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폐막식을 갖고 4년 뒤 소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한국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한국 체육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

빙상과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루지 등 5개 종목에 46명의 선수가 참가한 한국은



1일 밴쿠버 BC플레이스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식. /연습스

역대 최대 메달인 금메달 6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국가별 종합순위에서 5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종합 1위는 주최국 캐나다가 차지했다.

4년 전 토리노올림픽에서 6개의 금

메달을 딴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은메달 4개·동메달 2개에 그쳤으나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모태범과 이상화·이승훈(이상 21·한국체대)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휩쓸었다. /연습스

50th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  
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같이 온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http://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크기, 병후-부흥  
- 체력 저하 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로 인해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  
- 피로 회복,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 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 팔꿈치, 수족저변 수족관종  
아연의 보급